

작년 생산 식량작물 3만5218kg 신속 보급

농진청, 벼 76·밭작물 73품종 등 전국 134개 지역 농촌진흥기관 통해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0년 생산한 식량작물 11품목 149품종 3만 5,218kg을 전국 134개 지역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보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보급된 종자량은 ▲벼 76품종 2만 3,805kg ▲밭작물 10품목 73품종 1만 1,413kg이다. 재배 면적으로 환산하면 벼는 476헥타르(ha), 밭작물은 164헥타르(ha) 재배가 가능한 양이다. 이 중 최근 5년 이내 육성한 품종이 차지하는 면적은 433.5ha로, 전체 재배면적 640헥타르(ha)의 67.7%(쌀 65%, 밭작물 75.7%) 수준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매년 우수한 식량작물을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보급종 공급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신품종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해 농업인에게 보급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외래 품종이나 오래된 지역 품종 대체 및 지

역 특화 품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집중 지원했다. 벼 외래 품종을 대체할 목적으로 충북 진천·청주에는 '추청' 대체 품종인 '알찬미', 경북 상주에는 오래된 지역 품종 대체를 위해 밭작물은 복합내병성 품종인 '미소진미', 전북 익산에는 내병성이 증진된 '신동진' 대체 품종인 '참동진'을 각각 보급했다.

이 품종들은 모두 2018~2020년 육성한 신품종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별 최대 1000kg까지 보급했다. 이렇게 보급된 품종들은 지방농촌진흥기관·지역 농업 미곡종합처리장(RFC)·농업인 등 지역 재배 주체들과 소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품종 대체 및 지역 특화 품종화를 진행하게 된다.

밭작물의 경우 품목은 다양하지만 소면적 재배 작물이기 때문에 보급 경로가 많지 않아 국립식량과학원을 통

한 조기 보급이 큰 의미가 있다. 올해는 지역 특화 소득 작목 재배를 위해 2019년 육성된 콩 '미풍'과 '신유2호', 2018년 육성된 땅콩 '해울', 2017년 육성된 풋땅콩 '세원' 등을 다양한 지역으로 보급했다. 또한, 국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외래 품종 고구마를 대체하기 위해 고구마 7품종('진음미', '호감미', '풍음미' 등) 3000kg을 보급했다.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권도하 과장은 "식량작물 경기 분양은 신품종 특화 품종화를 원하는 지역 요구에 부응하고, 최소 4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보급종 공급 체계 소요 시간을 앞당겨 신품종이 나온 다음 연도에 조기 보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의 조기 확산에 앞장서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15일 남원시청에서 열린 'LX드론활용센터 구축 및 전북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성명 전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원에 '드론활용센터' 구축

시·LX·전북도, 드론산업 발전 협약 체결

LX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김정렬)가 전라북도, 남원시와 함께 LX드론활용센터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LX는 15일 남원시청에서 최승욱 LX 공간정보본부장, 전경식 남원시 부시장, 김성명 전라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X드론활용센터 구축 및 전북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LX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전북도와 남원시와 협력을 이어감으로써 LX드론활용센터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LX는 ▲LX드론활용센터 구축·운영 ▲전북 드론산

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실용화 촉진 등을 이행하게 된다.

전북도는 ▲LX드론활용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법률적 지원을, 남원시는 ▲기반시설(진입로·상하수도 등) 설치 ▲사업 추진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인력 파견 등 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감정평가 실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토지매입 등 LX드론활용센터 구축을 위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성명 전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LX드론활용센터는 전북의 드론산업

육성에 초석을 다지는 특정한 토대가 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완주 남원시장은 "많은 노력으로 LX드론활용센터를 유치한 만큼, 이를 발판으로 남원시가 미래 신성장 산업인 드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것"이라며 주민과 토지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승욱 LX 공간정보본부장은 "LX드론활용센터를 통해 전북지역을 국내 드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X드론활용센터는 두 차례 걸쳐 진행된 부지공모에서 선정된 남원시 주생면 일대 면적 5만 6,938㎡에 교육장, 관제실, 이차특장 등을 갖춘 2022년까지 건립한 뒤 2023년 초 운영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새만금 투자기업에 금융·보증 지원 강화

새만금청-SGI서울보증 협약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5일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투자기업에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보증업무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정책 개발 ▲우대보증 지원정책 발굴 ▲기업역량평가 강화 등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투자기



업에 대한 금융·보증 지원 확대는 기업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투자기업에 위한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호남지방통계청, 19일부터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실시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이호석)은 올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오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를 나누어 실시되는 지역별고용조사는 시군단위의 고용현황 및 산업·직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해 지역고용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취업 및 구직에 대한 사

항, 기타 활동 및 이직직장에 관한 사항 등 총 32개 항목으로 상반기 조사에는 '경력단절 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항목' 등을 추가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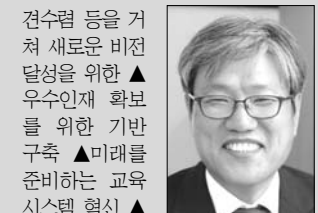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대상가구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인 전화 및 인터넷 조사 참여 협조를 당부"하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응답"을 부탁했다. /김윤상 기자

우수인재 확보·교육시스템 혁신

한국농수산대학(총장 조재호·사진, 이하 한농대)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농대 중장기 발전방안'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한농대는 1997년 개교 이래 5551명의 졸업생을 배출(지난해 기준)해, 전체 졸업생의 84.7%가 성공적으로 농어업 현장에 정착했으며, 졸업생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9,000여만원으로 일반농가(4,118만원)의 2배 이상(2019년 기준)에 달하는 등 선도농어업인 양성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시대 도래, 기후위기 심화 등 변화된 교육환경 하에서, 세분화된 학과 단위(19개) 입시 운영, 공급자 중심 교육체계, 정착 유형별(승계, 창업, 취업) 차별화된 지원 미흡 등으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대학 비전을 기존 '미래 농수산업 리더를 양성하는 NO.1 대학'에서 '농수산업 미래를 함께하는 디지털 농어업 인재양성 대학'으로 변경하고, 대내외 교육환경 분석 및 내외부 전문가의



견수령 등을 거쳐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시스템 혁신 ▲영농·영어 정착 지원 강화 ▲교육 전문가로서서의 위상 강화 등 4대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한농대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영농 기반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영농 의지가 강한 인재의 입학 기회가 확대되도록 입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농수산업 신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기반 점수가 없는 특별전형의 모집비율을 확대하고, 일반전형에서도 단순 영농기반 점수를 축소하고 영농의지 평가를 위한 면접평가 점수를 확대해 영농의지가 강한 인재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의 전공·교과 선택권을 강화한다.

둘째, 4차 산업 기술 등 미래지향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교육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새만금 간척지에 '한농대 스마트 농업 실습장'을 조성해 첨단 실습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한농대는 영농·영어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졸업생 관리를 '영농 이행 점검'에서 '영농 정착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한, 창업 준비부터 안정적인 정착까지 정보 제공 및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졸업 후에도 정착 단계별 교육·지원을 지속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전문가로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일반 농어업인, 농고·농대 졸업생 등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어업 계 교육생·지역주민·잠재적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다양한 비학위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한편, 평생교육원을 '농수산인재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교육과정 및 인원을 확대

비래 해충 방제해야

멸강나방 비래시기 전년보다

10여일 빨라 농작물에 피해

전북도농업기술원(박경숙 원장)은 중국으로부터 기류를 타고 비래해오는 해충을 예방한 결과 벼, 옥수수 등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멸강나방이 전년보다 약 10여일 정도 일찍 비래했다고 말하며 예방과 방제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멸강나방과 열대겨세미나방은 옥수수, 수수, 목초류 등 가해 작물 범위가 매우 넓은 비래해충으로 방제가 소홀하면 특히 벼과 작물의 잎과 줄기를 갉아 먹어 피해를 주는데, 멸강나방은 해마다 4월부터 비래하기 시작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열대겨세미나방은 2019년에 비래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농업기술원 문형철 박사는 올해 봄철 온도가 평년보다 높게 경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멸강나방이 처음 채집된 시기가 지난해보다 빠르고 채집량도 많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마다 발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료작물이나 일찍 심은 옥수수 포장 등을 잘 살펴 발견 즉시 방제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비래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제예찰을 통한 적정 방제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김제, 고창, 부안 등 비래가 우려되는 지역에 비래 나방류 예방을 위한 페로몬트랩을 설치하여 4월부터 비래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가 우려되는 작물의 생육초기부터 발생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에서는 비래 나방류의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예찰과 방제 준비를 해줄 것과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예찰 정보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영환 기자

농촌 일손부족 해소·풍년농사 기원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 영농지원 발대식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송혁)는 15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영농지원 발대식과 농촌일손돕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송혁 전주완주시군지부장, 박성근 농산보전복지센터장, 정완철 용진농협 조합장, 황정희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등 20여명이 참여해 용진면 운곡리 복숭아농장에서 꽃 수거를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송혁 지부장은 "코로나19 장기

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미 입국 등으로 농촌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을 위해 관내 농·축협 및 유관기관과 함께 영농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와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는 지난해 봉사와 나눔의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후 농촌일손돕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사랑의 간식나눔 행사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신협, 모바일 앱 은행가입자 100만 기원 이벤트

6월 30일까지 진행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은행' 가입자 100만 기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협의 모바일 플랫폼 '은행'은 상호금융권 최초로 비대면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계좌 개설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나날이 증가하는 언택트 수요에 힘입어 출시 이후 가입자가 매일 평균 6만 명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6개월 만에 예·적금 총액 1조 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신협이 은행' 사용자 최대 6,000명 대상으로 푸짐한 선물을 증정한다. 먼저 은행' 111만 번째 가입자에게 축하금 100만 원을 전달한다. 이벤트

기간 내 ▲은행' 앱 신규 가입자 1,000명(추첨)과 ▲비대면 조합원 가입자 1,000명(선착순)에게도 각각 모바일 상품권 5,000원과 1만원 선물을 한다.

은행' 전용 상품 가입자를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 중 소액으로 목돈 마련이 가능한 '유니온 정기적금'과 '유니온 자유적립적금', 2030 여성 특화 '레이디4U적금', 최대 1.2%의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E-과관적금' 등을 신규 개설 후 이벤트 기간 내 20만원 이상 불입 시, 총 1,000명(선착순 500명, 추첨 5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 동일 기간 '어바비신협ON(ON)상해공제' 가입자 전원에게도 모바일 상품권 6,000원을 선분한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이창섭 교수

코로나19 공로 대통령 표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감염내과 이창섭 교수가 코로나19 대응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실장과 감염내과 과장을 맡고 있는 이창섭 교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헌신하면서 관련 질환에 대한 자료와 정보제공 등을 통해 전라북도의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윤상 기자

